

전남, '블루 농수산' 탄력... 1151억 확보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전남, 상반기 공모사업 14개 뽑혀
4개는 100억 이상 대형 프로젝트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올 상반기 공모사업에서 14개 사업이 선정돼 115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선정사업은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 구축 350억 원 ▲2020 농촌협약 시범도입 300억 원 ▲2021 농촌 신활력 플러스 196억 원 ▲202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05억 원 ▲2021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87억 원 ▲2020년 GAP 시



전남도청 전경

설보완 사업 4억원 등이다.

100억원 이상 국비가 투입될 국가 대형프로젝트로 4개 사업이나 선정돼 '전남 블루 농수산' 비전 달성을 한 단계 앞당기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특히 최근 장성 삼계면에 유치 확정된 '신소득 유망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는 전남도가 범국가적인 아열대 작물 재배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 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결과로 평가된다.

실증센터는 고품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농업을 이끌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 지구 등 총 3개 분야 12개 지구가 선정돼 사업비 385억 원,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농촌협약 시범사업'으로도 300억 원을 확보했다.

이외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17억 원을 비롯해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1억5000만원, 라이스랩 운영사업 1억원 등 올해 국비 118억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침체된 농업과 농촌 경제가 활력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0년 전남도 농업분야의 국비예산은 6029억원으로 국비 의존률이 68.4%에 달한다. 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만큼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안동시 SW 미래채움사업 공모 선정

안동시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정보소외계층 격차 해소와 지역 소프트웨어(SW)교육 자생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2020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35억 원을 포함 총 70억 원을 투입해 안동시, 포함시에 ▲SW체험교육센터 구축, ▲SW전문강사 양성 ▲초·중등학생 대상 SW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수행한다.

'2020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은 경상북도도와 안동시, 포함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한다. 사업 수행을 위해 포함시를 중심으로 환동해SW미래채움센터, 안동시를 중심으로 백두대간SW미래채움센터(로봇융합연구원농업자동화센터 내)를 구축해 SW체험교육장, 강사양성 교육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영양군 농민 울리는 농약사



기지 수첩
김 태 우
(지방자치부)

농약사는 농번기 때 농민의 단골 가게다. 농업용 비닐을 포함하여 농약 등 많은 제품을 농약사에서 구입해 사용한다. 농업용 자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농민은 제품의 정보를 농약사로부터 얻으며 농약사가 말하는 내용을 대부분 신뢰하게 된다.

"진딧물에 쓰는 농약 주세요." "고추 밭에 깔 비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농약사는 적절한 제품을 농민에게 설명하고 판매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불량제품, 혹은 검증과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북 영양군에 위치한 O농약마트에서 판매한 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비닐)을 실제로 사용해 보니 예전에 사용했던 비닐과 많이 달랐다. 비닐의 강도나 질감 정도, 두께 등에 차이가 있어서 모니터링 해 보았다. 그 결과 이 제품은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임이 확인됐다. 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비닐)은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단체표준인증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고 생산 및 판매를 해야 한다.

하지만 농약사를 믿고 거래하는 농민의 심리를 이용, 제품인증을 받지 않은 비닐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불편조라는 물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제품은 햇빛에 잘 분해 돼 비닐가루가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론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공기 중에도 섞여 멀리 날아갈 수도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양질의 농산물 생산은 농민 모두의 바람이요 꿈이다. 제품 인증을 받지 않은 농업용 비닐을 포함한 농자재를 판매하는 것은 농민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주지하고 반드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취급해야 한다.

또한 일부 농약사에서는 제품의 현금결제구입액과 카드결제구입액의 가격을 차등 적용하기도 한다.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카드결제 시 부가세 10%를 따로 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도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농촌지역이라서 그런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담당자는 "이런 이중 잣대 판매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해당 농약사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세무감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의 신뢰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영양(경북)=ktu3987@



파도에 몸을 맡긴 채

1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항리 앞바다에서 서퍼들이 파도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中企에 경영안정자금 1400억 투입

전년비 매출 10% 이상 감소 기업

전남도와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도내 중소기업에 긴급·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 원을 1일부터 전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자금은 기존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인 제조업 및 제조·지식서비스업에다, 병·의원, 여행·숙박업, 여객·화물운송업 등으로 범위를 넓혀 취급할 예정이다.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업체는 지원 대상이며 기업별로 최대 5억 원을 지원(매출액 50% 이내)하기로 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우천시 진흥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약화 및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북한도 발사태 등으로 국내외 경제·정치환경이 극도의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코로나 직접 피해기업을 포함한 모든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위기를 무난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흥원 무안 본원인 순천 동부출장소에서 동시에 긴급 및 일반 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육성 자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전남교육청 농업계열 특성화고 학생 대상 농업 교육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 도내 농업계열 특성화고 2학년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창의융합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미래 Young農人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 4일과 8월 10일~8월 14일 총 74시간 동안 이뤄지며, 지난 6월 27일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농업교육과에서 오리엔

테이션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능숙달 교육을 탈피해 전문 농업 실무능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농업환경서비스, 농업생산 시설제어와 농공융용, 융복합 농기업, 농축산물 가공 분야로 나눠 학생들이 심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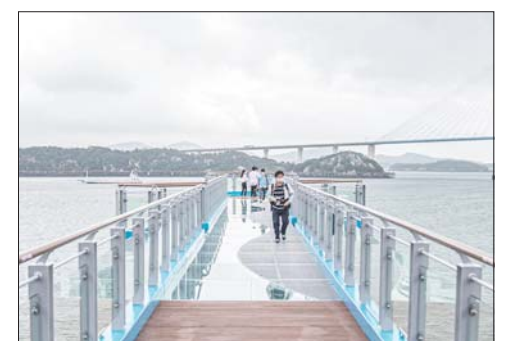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축전' 내일 안동 도산서원서 개막

'2020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축전' 개막 행사가 오는 3일 오후 3시30분 안동 도산서원에서 열린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의서원동합보존관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전은 지난해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도산, 병산, 소수, 남계, 옥산, 필암, 도동, 무성, 돈암서원)에서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라는 주제로 7월 한 달간 다채롭게 진행된다. /경북=문봉현 기자

예천군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예천군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일부 감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이다.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예천수도관리단을 방문해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7월에 신청을 하면 8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경북=문봉현 기자



대반동 앞바다 스카이워크

/목포시

목포시 대반동 앞바다 스카이워크 개방

목포 대반동 앞바다에 스카이워크가 들어섰다. 목포시는 대반동 유달유원지 앞바다에 총 사업비 14억원(국비 7억, 시비 7억)을 들여 조성해온 스카이워크 포토존 사업이 마무리되어 7월부터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스카이워크는 길이 54m, 높이 15m로, 바닥의 3분의 2 이상이 안전한 투명 강화유리 및 스틸발판으로 제작됐다. 상공 15미터에서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아찔한 스틸감을 제공하면서도, 입장객들의 안정감을 위해 난간 높이는 140cm로 기준 높이보다 20cm 높게 설계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부산시 "을숙도 문화 여행하면 기념품 증정"

부산시가 을숙도와 낙동강하구를 알리기 위해 나선다.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부산현대미술관, 을숙도문화회관, 한국수산업자협회 부산권지사, 낙동강문화관 등 4개 기관과 함께 '을숙도 문화·생태여행 완주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을숙도에 있는 부산현대미술관, 을숙도조각공원, 낙동강하구둑전망대 등 생태문화 관련지 8곳을 방문한 뒤 생태여행여권에 2개 이

상 기관의 인증도장을 받으면 도장 개수에 따라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체험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을숙도는 '새가 많고 물이 맑다'는 의미를 지닌 모래섬으로 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한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이기도 하다. 부산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인근에 부산현대미술관 등이 개관하며 문화와 생태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